

## Rococo시대에 나타난 헤어스타일 연구

황윤정<sup>1)</sup> · 조기여<sup>2)</sup> · 정윤희<sup>1)</sup>

- 1) 대구가톨릭대학교 패션산업학전공  
2) 거창전문대학 뷰티디자인과

### A study of hairstyles in Rococo

Yun-Jung Hwang<sup>1)</sup>, Ki-Yeu Jo<sup>2)</sup> and Yun-Hee Jung<sup>1)</sup>

- 1) Dept. of Fashion Industr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Kyungsan, Korea  
2) Dept. of Beauty Design, Keochang Provincial College, Keochang, Korea

**Abstract :** Rococo, which is represented as immoderate pleasure and luxurious aristocracy, had required to be liberal and unconventional in art and life, and the hairstyles were also much more fantastic, huge, and splendid than ever. Women's hairstyles in the early 18th century were the relatively simple style of Pompadour style that didn't inflate hairs and combed them backward. Then, as changes in hairstyles began to appear in around 1760, the styles became gradually higher and huger, and very queer styles also appeared. In the 1780s, they ornamented these hairdos by using various things. This can be considered as women's behaviors that showed off their status and wealth instead of their husbands. Although men's hairstyles were not as huge and decorative as women's, wigs were worn frequently. Wigs became smaller and simpler than those in 17C, and while wearing them, they made wigs whitened by spraying hair-powders enough not to recognize their ages. Several names such as Pig tail, Ramilleis, Bag wig, Brigadiere, and so on existed, according to the way to tie the wigs. Somewhat exaggerated men's hairstyles were shown by Macaronis in 1780s. However, this can be regarded to reflect the situation of the age.

**Key words :** rococo hairstyles, pompadour style, queer styles, pig tail, bag wig.

### 1. 서 론

17세기부터 정치적, 경제적 강대국으로 부상한 프랑스는 18세기에 더욱 발달하였다. 경제적 부를 배경으로 한 프랑스 왕실과 귀족계급의 패락과 사치에 대한 무한한 욕구는 로코코 양식을 낳았으며, 상공인과 전문적 직업인을 포함한 부르조아 계급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 교육수준이 높았으며 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대한 열망이 커졌다. 따라서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한 궁정문화는 시민을 중심으로 한 사회가 이끌어 가는 시민문화로 변형되었으며 새로운 자유와 창의력, 품위 있는 심미안에 대한 열망, 그리고 세련된 복식 등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의 계급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인 것이었다(Boucher, 1987).

18세기 후반부터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유한(有閑) 부인층이 형성되었고 그들은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예술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 당시 사회 전체는 폭발적인 해방감과 부의 재분배 속에서 우아하고 화려한 생활을 향유하였으며 과시와 허영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창의성 풍부한 의복은 계

급간의 격차를 좁혀 주었다.

실제로 사람이 몸을 치장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얼굴과 헤어와의 조화로, 해어는 의복과 달리 갈아입을 수 없지만, 풀거나 묶거나 해서 변형함에 따라 얼굴이나 헤어스타일과의 조합을 생각하여 특이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인간의 두발은 영장류 가운데 가장 길고 잘 자란다는 점에서 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고 한다(道邊·增子, 1996).

현대에는 헤어스타일이 무수히 많다. 예를 들면, 머리 한가운데를 나눈 웨이브(wave) 스타일, 높게 솟은 빅(big) 해어, 희의실에 어울리는 스타일, 침실에 어울리는 스타일, 수세미처럼 부시시한 머리, 고대 이집트풍, 완전 유럽풍, 펑크(punk) 스타일, 사회적 지위를 주장하는 스타일, 완성된 스타일, 미완성 스타일 등등, 이렇게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살펴보면, 현재의 문화에서 엿보이는 전부는 아닐지라도 많은 자기이미지의 이상적인 방식을 파악할 수가 있다(グラント・マクラッケン,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세시대 중에서도 가장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 18세기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 여성과 남성의 헤어스타일을 알아보고, 로코코 장식과 관련하여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살펴보고, 그 형태와 표현방법의 특징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Corresponding author: Yun-Jung Hwang  
Tel. +82-53-850-3531, Fax. +82-53-850-3531  
E-mail: yunj1128@hanmail.net

연구방법은 18세기 로코코에 관련된 국내외의 복식, 미학에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수집·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그 형태적인 특성을 전개하여 고찰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사회·문화적 배경

18세기 로코코(Rococo)시대는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는 루이 15세의 섭정기(1715~1725), 중기는 루이 15세의 친정기(1725~1774), 말기는 루이 16세(1774~1792) 시대로 구분된다. 로코코 양식으로 가장 화려한 시기는 중기인 루이 15세의 친정기와 루이 16세의 초기이다(백영자·유효순, 1998).

18세기에는 중앙아시아 및 극동 아시아와의 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그들의 문화와도 접하게 되어서 유럽도 큰 영향을 받았다. 직물에서도 좀 더 가벼운 재질, 작은 문양, 신비하고도 밝은 분위기의 직물이 18세기 전반에 걸쳐 사용되었으며 프린트가 된 면직물도 인기가 있었다. 프랑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직물의 수입을 금하였으나 오히려 욕구를 자극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고전예술에 대한 관심이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에서 있는 유적 발굴 및 1764년도의 *History of Ancient Art*의 출판 등으로 인해 고조되었다. 건축분야에서는 18세기의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 특히 동부의 모든 주의 주청사 건물의 기둥과 돔들은 고전주의 부활의 증거물(이종남, 1988)들이다.

18세기 초에 프랑스는 루이 14세의 후광으로 여전히 이전 시대의 호화로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세기의 문화를 대표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이전보다 더욱 독보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었다. 각 국은 프랑스 문화를 추종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으며 예술도 패션도 사교예절도 모두 프랑스식 일색으로 되었다.

17세기부터 사교계에 등장한 여성들은 18세기에는 공적 모임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영향력 있는 여성은 드물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결코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18세기는 문화적으로는 프랑스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였지만 정치·경제적으로는 영국이 비상한 발전을 보인 시대로서 프랑스는 사상적으로 많은 영향을 영국으로부터 받았다. 18세기 중엽 볼테르나 루소와 같은 인물들이 미국에서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전쟁과 다소 병행된 지적인 혁명운동을 이끌어 나갔다.

또한 미국에서의 전쟁은 프랑스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은 프랑스 인민이 시민계급을 선두로 절대왕권 하의 구체제(Acien Régime)를 타파하고 자유와 평등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싸운 투쟁이다. 혁명 이전의 프랑스는 태양왕 루이 14세부터 강화되어 온 절대 왕권 하에 제 1신분인 성직자, 제 2신분인 귀족, 제 3신분인 평민으로 구성된 계급주의 사회였다(조좌호, 1990).

이와 같은 사회풍조에서 형성된 감각이 서유럽 모드를 크게 지배하게 되었으며 이미 이전과 같이 권력표시를 위한 호화로움도 아니고 정연한 규칙도 아니었다. 대신 환상적이고 정겨움이 넘치는 모양이 되었다. 이 경향은 세기 중엽부터 특히 현저해지며 장식에까지 특유한 뉘앙스와 매혹이 넘쳐흘렀다.

### 2.2. 로코코 예술양식

루이 14세의 사후(1715)부터 프랑스혁명까지(1789) 유럽미술 양식을 로코코 양식이라 하며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이정옥 등, 1999).

로코코의 어원은 프랑스어로 로카유(rocallie)와 코키유(coquille)인데, 이는 '정원의 장식으로 사용된 조개껍데기나 작은 돌의 곡선'을 의미한다. 이 곡선의 감각은 잔잔히 흐르는 듯, 경쾌히 춤추는 듯한 선 감각으로서 우아하고 여성적인 것이며, 귀족적이고 반 자연적이며 인공적이고 실내적인 특색을 지닌다. 즉 리드미컬한 곡선이 주제를 이루며 밝고 화려하고 세련된 귀족취미를 바탕으로 했다.

그리하여 로코코는 외형상의 양식이기보다는 장식의 개념에 치중한 것이다(정홍숙, 1997).

로코코 시대에는 새로운 부르조아 계급의 급성장으로 아름다운 부인들을 중심으로 살롱(salon)문화가 발달하고, 여성중심의 예술이 꽃을 피우게 되어 드디어 잔잔하고 섬세한 곡선미의 로코코 예술이 탄생(백영자·유효순, 1998) 되었다.

살롱은 16세기 중엽에 몇 개의 살롱 문호가 개방되고 나서부터 부유한 시민들의 쾌적한 사교장으로서 번영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남녀가 정치, 경제, 사회, 철학, 문학, 도덕, 풍속, 생활감정, 예술 등 여러 가지 화제를 중심으로 즐겁게 토론했다.

형식적인 허세 없이 부드럽고 섬세한 분위기를 즐겼던 살롱 문화는 장식미술에 로코코 양식을 나타나게 했다. 즉 꽃, 리본, 레이스, 루프, 꽃바구니 등의 유연한 모티프가 기묘하게 어우러져 모든 생활공간에 표현되었다. 그 중 벽면장식, 직물의 문양, 의상 장식에는 특별히 세련된 곡선의 감각이 전개되었다.

18세기의 빼놓을 수 없는 두 인물이 있다. 즉, 루이 15세기의 애인인 마담 풍파두르(Pompadour, 1721~1764년)와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뜨와네트(Marie Antoinette, 1755~1793)이다. 이들은 18세기의 패션 리더로서 그들의 차림새는 곧 프랑스 사교계에 유행이 되었고, 이는 다시 유럽 전역으로 파급되었다.

퐁파두르 부인은 매우 지성적이었고, 또한 예술 전반에 걸쳐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다양한 예술적 취미는 프랑스 문예를 진흥시키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이처럼 풍파두르 부인의 영향력이 다방면으로 확대되자 당연히 그녀의 취향이 당시의 예술과 의상 양식의 모범이 되었다.

마리 앙뜨와네트는 허영과 사치의 표본으로, 20년 동안 베르사이유라는 개인무대 위에서 자기 도취에 빠져 로코코 양식의 여왕 역할을 화려하게 해냈다. 즉위한지 석 달도 안되어 그녀

는 벌써 의상계의 패션 리더가 되어 의상과 머리형의 모델로 부상했고, 그녀의 스타일은 모든 실통과 궁정에서 모방되었다(정홍숙, 1997). 마리 앙뜨와네트는 18세기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이 되었고, 18세기의 사회 풍속과 인생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현했다.

로코코풍은 프랑스 혁명에 이르기까지 복식 전반을 지배하는데, 18세기 중엽부터 약간 다른 경향을 보이게 된다. 고대식의 간소한 아름다움이 로코코 양식에 융합되기 시작한 것이다. 굽이치는 곡선과 소용돌이 대신 품위 있는 직선을 좋아하게 되며, 자유분방한 움직임에서 어떤 일정한 틀에 들어가려는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극도의 쾌락에 지쳐 미와 지성이 숨 쉬는 고전풍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3. 로코코 시대의 헤어스타일

#### 3.1. 여성의 헤어스타일

18세기 여자들의 머리모양은 가장 홍미를 집중시키는 스타일을 연출했다. 1717년경 이후 17세기 후기의 높게 뻗어 올라간 풍팅쥬(Fontanges)는 유행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사람들은 대신 그다지 높지 않은 훨씬 자연스러운 스타일(윤길순, 1997)을 채택했다.

18세기 전반의 여성의 헤어스타일은 모발을 머리에 밀착시키

도록 앞머리를 이마에서 뒤로 당겨서 작게 묶고, 보통 그 위에 소형의 쟁이 없는 모자를 써서, 전체가 작은 머리 모양이 되도록 마무리하였으며, 이 단순한 헤어스타일 위에 견, 레이스, 조화, 리본, 해오라기 텔 장식, 염주 등의 고급스러운 작은 장식을 달았다. 이 스타일은 루이 15세의 총애를 받았고, 1745년에서 1864년경까지의 사교계와 패션계, 지식인 세계에서 군림한 아름다운 풍파투르부인의 다양한 초상화에 의해서 알 수 있다(鮎川, 1959) (Fig. 1~2).

1730년대와 40년대에는 헤어스타일이 부드러워졌는데 작고 얇은 천으로 만든 캡(cap)을 머리 뒤쪽의 풍성한 컬(curl) 위에 쓰거나(Fig. 3) 또는 좀 더 긴 컬이 드러난 어깨 위를 지나 앞으로 내려왔다(이종남, 1988) (Fig. 4).

18세기 중반에는 앞머리부분에 곱슬머리를 세트하는 헤어스타일이 등장했다. 곱슬머리에는 프랑스형, 영국형, 이탈리아형 등의 종류가 있었다. 1750년에 부인들은 전부터 유행하고 있던 가발을 패션으로 받아들였다. 여성의 가발은 여러 가지 불이는 곱슬머리나 장식을 사용해서 마무리하였고 또한, 정성 들여 조발(調髮)해서 마무리되어 있는 독립된 가발도 있었다.

이것은 주위에 조발을 담당하는 사람이 없는 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편리한 것이었다. 무도회를 위해서 머리를 손질하는 부인은 종종 전날에 조발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앉은 채 잠들어야만 했었다. 부인은 조발이 끝나면, 남성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종이 또는 유리로 된 원추형 용기로 얼굴을 덮고, 머리에 머리분을 뿐렸다. 이를 위해서 자수가 놓인 발분용 망토나 짧은 화장용 복장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머리분 퍼프, 머리분 주머니, 머리분 분무기 등이 발명되었다(鮎川, 1959).

1760년대는 그 이전보다 훨씬 과장된 형태의 스타일로 돌변하였다. 마치 얼마나 머리를 높이 쌓아올릴 수 있는가에 송부를 걸고 경쟁하듯 머리 위로 탑을 쌓아올린 것 같은 형태(Fig. 5)를 선호하였는데, 어떤 것은 높이가 3피트나 되는 것도 있었다.

1760년대에 머리모양이 점차 정교해지면서 머리장식도 완전히 변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독특한 스타일은 칼래시(calash)스타일이었다(Fig. 6). 이것은 화려한 실크로 만든 후드 형태로 등나무 줄기 버팀살대 위로 셔링이 되어 있었으며, 포장마차처럼 콘서티나(concertina, 아코디언 비슷한 육각형의 악기) 식으로 접을 수 있게 만든 완전히 새로운 패션이었다(윤길순, 1997).

Fig. 1. Madame de Pompadour(BEAUTE DU SIECLE p.61).

Fig. 2. Pompadour Style(20,000 Years of Fashion, p.309).

Fig. 3. Lace Cap(The Hat, p.55).

**Fig. 4.** The Marquies de Saint-

Maur(20,000 Years of Fashion, p.309)

**Fig. 5.** Cabinet des Estampes(20,000 Years of Fashion, p.293).**Fig. 6.** Calache Style(The Hat, p. 62).

1769년의 어떤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파리에는 1200명의 미용사가 있었으며,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수강료를 받고 제자를 두고 있었다. 당시의 미용사는 대개 남자들이었는데 이유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었지만, 남성이 일에 있어서 독창성을 발휘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남성 쪽이 선호되었다(鈴川, 1959). 그 중 가장 유명한 미용사로 르그로(Legros de Rumigny)를 들 수 있다. 그는 미용학원인 “Academie de coiffures”을 세워 자신의 테크닉을 전수하였고, 실제 머리카락이나 그가 제작한 가발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다양한 형태의 머리모양이 수록된 “프랑스 귀부인 미용의 기술(Art de coiffures des dames francaises)”을 저술(Boucher, 1987)하였다.

1770년대의 괴상한 머리 구조를 가져온 당시의 환경들을 지금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패션의 발달은 유한 계급의 출현, 지극히 낮았던 위생학에 관한 지식들에서 기인한다. 이런 패션은 의복의 모든 면들이 환상적이고, 개인의 외모가 다급한 정치적 혼란보다 더 주된 관심사였던 시기에 나타날 수가 있었다.

이 괴이한 머리 모양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굽이치는 파도 속을 항해중인 배의 모양으로서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해전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디자인이다(Fig. 7). 인물, 마차, 정원 등 당시의 관심거리들은 무엇이든지 텁같이 쌓아올린 머리카락 위에 장식하였다(이종남, 1988).

1780년대에는 여성의 헤어스타일이 하늘에 닿기라도 하듯이 다양한 물건을 사용해서 장식하게 된다. 그것은 깃털, 꽃, 과일, 리본, 레이스, 유리의 장식 등인데, 때로는 이 모든 것을 한번에 사용하였다. 그녀들은 머리에 작은 정원이나 해전광경을 재현해서 나타냈다고 한다(Fig. 8~9).

또한 여성의 모발 속에는 머리에 딱 맞는 형태로 만들어진 작은 납작한 병을 숨기고, 여기에 생화를 꽂아 물을 넣기도 했다. 머리가 너무 커서, 특별히 남을 배려하는 주인은 현관을 개축해서 손님이 머리에 얹은 소극장을 무너뜨리지 않고 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한다. 이처럼 거대한 헤어스타일이 여성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자기 자신이 아니

**Fig. 7.** 화망모양의 장식(世界服飾史, p.99).**Fig. 8.** 거대화하는 모리모양(西洋服裝史, p.93).**Fig. 9.** 거대화하는 머리모양(西洋のヘアーファッション, p.44).

라 남편을 대신해서 그 지위나 부를 세상에 과시하는 소비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그란트 · 맥락Ken, 1998).

1780년 마리 그랑빌 델라니(Mary Granville Delany)는 높은 헤어스타일에 관해서 너무나도 거대해서 누구도 사륜마차에 똑바로 앉아 있을 수 없어 마치 어린이용 마차에 타고 있는 것처럼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마치 뇌 속의 인플루엔자 가 번창하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것은 그 당시의 헤어스타일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Andson Black, 1985).

탑처럼 솟은 헤어스타일을 한 아름다운 부인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유행하였고, 다소의 변화는 있다고 해도, 거대함은 계속되고 있었다. 헤어드레서(hair dresser)인 윌리암 바커(William Barker)는 마리 앙뜨와네트를 「오렌지색의 머리 가루분을 최초로 유행시킨 인물」이라고 했다(Andson Black, 1985)(Fig. 10). 이것은 인공의 빛을 죄면 흔히 적모로 불리는 색과 매우 유사한 색으로, 부인들의 안색이 나쁜 경우에는 잘 조화를 이뤄 효과적이었다.

1780년대에는 또한 다양한 머리분이 반세기 이상에 걸쳐서 여성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머리분에는 얼굴의 피부색을 실제 이상으로 잘 보이게 하고, 눈을 더 빛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항상 정장용으로서 사용되었다. 화색과 연갈색 또는 연한 다갈색의 머리분이 가장 선호되었던 것 같고, 흰색 머리분은 종종 가볍게 뿐려서 광택을 없애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鮎川, 1959).

머리분을 머리카락에 붙이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포마드나 머릿기름이 이용되었고 곰의 기름을 모발에 사용했다는 기록은 1793년 2월 7일 「The Times」 지의 광고에서 볼 수 있다(Andson Black, 1985). 이것은 머리카락을 질고 길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병후의 회복을 촉진시키고 평생 탈모나 머리카락이 쉬는 것을 방지한다고 생각하였다.

매일 손질을 하고, 강한 향수가 들어있는 기름을 바른다고 해도, 2주에서 9주나 되는 긴 시간동안 헤어스타일을 손질한 채 그대로 둔 머리는 분명 먼지투성이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당시 머리에 생기는 기생충을 구제하기 위한 약제에 대한 광고나 소개가 많이 나돌고 있었던 것이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어떤 기사에는 일주일에 한번은 머리를 긁을 필요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머리를 긁는 봉'이라고 불리는 머리의 가려움을 없애기 위한 세련된 소도구도 있었다. 이 봉은 끝에 갈고리가 달렸으며, 상아, 금, 은 등으로 만들어졌고, 때로는 다이아몬드를 박아 넣은 것도 있었다(鮎川, 1959).

마리 앙뜨와네트의 머리는 헤어드레서인 레옹아르(Leonard)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녀는 정식 헤어드레서가 있었지만 창의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손질하게 하고, 그 머리를 똑같이 레옹아르에게 풀게 한 후, 다시 새로운 스타일로 만들도록 하였다. 이러한 스타일은 그녀의 미적 허영심을 만족시켜 주는 각종의 기괴한 머리모양이 탄생되어 18세기 후기의 헤어스타일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것으로 특징 지워

Fig. 10. Marie Antoinette(서양복식문화사, p.249).

Fig. 11. Maria Theresa(ファッションの歴史, p.112).

졌다(Fig. 11).

모든 계급의 여자들은 여왕의 머리모양을 모방했는데, 그 크기와 복잡함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여서 지나치게 거대한 머리의 높이나 장식과용은 당시 여자들의 병적 자기과시를 말해준다. 머리장식의 재료와 명칭은 무한하여 이제까지 사용해 왔던 장식 외에 나무판, 인형, 태양, 달, 별, 심지어는 실물의 과일까지 사용하여 그 배치와 모양에 따라 '아름다운 화원', '사랑의 끈', '여왕' 등으로 이름을 붙였다.

또한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머리장식으로서 표현하기도 했는데, 거창한 머리장식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 불편한 거동과 외관은 풍자기들의 좋은 소재가 되었다(정홍숙, 1997)(Fig. 12~13).

깃털은 머리장식으로서도 모자장식으로서도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 오늘날 영국의 대례복용의 헤어스타일에 항상 달려 있는 깃털장식은 마리 앙뜨와네트의 프랑스식 패션에서 유래하고 있다. 어느 날, 몸치장을 끝낸 마리 앙뜨와네트가 놀이 삼아 공작새와 타조의 날개를 머리에 달고 있었는데, 그 때 루이 16세가 들어와서 그 모습을 칭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 패션이

유행하게 되었다고 한다(駄川, 1959).

로코코의 여성들은 옷보다 머리에 더욱 관심이 있었다. 이들은 많은 가발을 사용하였는데 단순한 머리 형태뿐만 아니라 새, 정원, 과일바구니 또는 야채바구니 및 과일모양 등 여러 가지의 형태로 만들어 머리 위에 올리고 각기 다른 명칭을 붙였으며 크기도 거대하였다. 로코코 시대 가발은 역사상 유래 없는 거대한 형태였으며 이러한 형태의 가발에 레이스, 리본 깃털, 조화, 보석 박힌 버클등으로 장식하였다.

1795년경부터는 혁명기를 거친 복장의 간소화로 대형 스타일은 사라지고 약간 높은 머리 스타일만 궁중의 공식석상에서 쓰게 되었으며 일반인의 헤어스타일이나 모자는 작아졌다.

Fig. 12. 거대화하는 머리모양 풍속(ファッションの歴史, p.92).

Fig. 13. 거대화하는 머리모양 풍속(ファッションの歴史, p.92).

### 3.2. 남성의 헤어스타일

18세기의 남성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발과 관련된 것으로, 장소와 직업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었다(이종남, 1988). 왕족에서 상공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급의 남성들이 지극히 일반적인 신체 기호품으로 가발을 썼다(Fig. 14).

실제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발의 재료도 다양하였으며, 디테일은 가발사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가발은 외관상으로는 뒤쪽에 늘어뜨린 꼬리부분은 모두 똑같지만, 앞머리의 길이와 흐름의 방향, 그리고 옆머리, 철의 형태와 수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다. 각 가발의 명칭은 직업이나 직무명으로 표현하는 것 외에, 변덕, 냉담, 질투, 모험, 신중, 무심, 멋 등 의미 있는 명칭도 있었다.

로코코 시대 남성들의 헤어는 바로크 시대에 비해 작고 간소해졌다. 바로크 시대의 신사들이 대형의 가발을 사용했던 것에 비해 로코코 시대 후반에는 경쾌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머리모양을 꾸몄다.

한편 중국을 통해 전 유럽에 전파되어 군인들의 헤어스타일이 되었던 단정하고 편리한 땅은 머리가 일반인들에게 보급되었다. 이 머리는 피그테일(pigtail, 髮)(Fig. 15·16)이라고 하였다. 군인사회에서 가발 손질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용사가 거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므로, 연대의 병사전원이 가발을 서로 묶어 주게 되었다.

젊은 남자들은 점점 무거운 가발을 싫어하게 되어, 가발의 머리를 한가운데에서 나누어 여름에는 뒤로 매듭을 몇 개닥 만

Fig. 14. Rococo wigs(ファッションの歴史, p.224).

Fig. 15. Pigtail(The Hat, p.55).

Fig. 16. Pigtail(歐米理容美容の歴史, p.159).

Fig. 17. Ramillies wig(歐米理容美容の歴史, p.153.)

들어 묶고, 겨울에는 아래로 늘어뜨려 두게 되었다. 이 습관으로부터 ‘매듭이 달려 있는 가발’이 태어났다(鈎川, 1959).

주머니가발은 1700년보다 훨씬 전에 병사들이 처음 사용하였으며 검은 주머니에 머리를 넣어서 끈으로 단단하게 조이고, 주머니와 같은 생지의 장미매듭이나 나비매듭 장식을 붙인 것이었다. 이 스타일은 일하는 도중에 자신의 머리를 감싸고 있던 하인들 사이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마구간에 있는 말꼬리가 주머니로 덮여있다는 것에서, 말을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1730년대까지는 남성들도 처음에는 너무 성의 없어 보여 사교장에서는 무례하다고 여겨졌던 이 스타일을 채용하게 되었다. 주머니는 1740년대까지 사이즈가 커졌고, 상의에 가발 기름이나 머리분이 묻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되었다(鈎川, 1959).

묶음 가발이나 주머니가발의 리본 끝은 목 앞으로 한바퀴 돌려서 나비매듭으로 묶었으며 이것은 솔리테르(solitaire, 나비매듭리본형태)라 불리며, 남성의 검은 견 벡타이의 기원이 되었고 보석이 달린 클립이나 다이아몬드 편으로 고정시키기도 하였다.

덥수룩한 짧은 단발의 가발은 성직자가 즐겨 사용하였는데, 평상시용이나 실내용으로서 일반 남성이나 소년도 썼다. 라밀

Fig. 18. Bag wig(歐米理容美容の歴史, p.153.)

Fig. 19. Brigadiere( ファッショソの歴史, p.224.)

Fig. 20. Catagon wig(歐米理容美容の歴史, p.153.)

위그(Ramillies wigs)는 군대에서 선호된 가발로, 그 명칭은 1706년에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교전한 벨기에의 라밀 전투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이 전투는 말버러(Marlborough)공작이 이끄는 영국군이 승리를 거둔 것으로, 공작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이 가발의 경우, 피그테일은 상하 두 군데가 검은 리본으로 묶여져 있었다. 또한, 땅은 머리를 밑에서 고리로 만들어 리본으로 묶는 경우도 있었다(鈎川, 1959)(Fig. 17).

일반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것으로는 백 위그(bag wig)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은 땅아 내린 뒷머리를 검은 실크 주머니로 싸서 깔끔하게 정돈했을 뿐 아니라 가발에 뿌린 분이 칼라나 재킷에 떨어지는 것도 방지하였다(윤길순, 1997)(Fig. 18).

그 종 백 위그는 옆머리를 잘라 칠하여 늘어뜨리고 윗머리는 납작하게 하여 뒤로 넘겼고 그 머리 끝은 견정 실크로 만든 크라포(crapaud)라는 백(bag)에 넣었다. 그리고 백 위 부분을 뒷목에서 리본으로 묶은 것이다(백영자 · 유효순, 1998).

1770년대에 유행한 카도간(cadogan), 별칭 클럽가발은 좀더 전 시대의 카도간 백작의 이름을 딴 것으로, 모발 술의 끝을 접어서 고리를 만들고, 끈이나 검은 나비매듭리본으로 묶은 것이었다. 때로는 이 고리를 작은 빗으로 고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1770년 무렵, 여성의 헤어스타일이 높아져 가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리스형 또는 말굽형이라고 불리는 불이는 앞머리가 등장하였는데 이것은 모발에 웨이브를 넣어서 두루마리 모양으로 모으고, 종종 철사 골조를 넣어서 귀로 쌓아 올리듯이 만든 것이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가발이 사용되었는데, 변발형으로 하나의 컬을 이루는 가장 많이 사용되던 가발, 끝이 두 개의 컬로 되는 브리거디어(brigadiere) 등이 있었다 (Fig. 19). 정장에는 백 위그가 공인된 형이었고, 뒤의 보우(bow)는 작아졌다.

18세기 초 25년간 가장 유행한 것은 매우 값이 비싼 아름다운 순백 모발의 가발이며, 다음으로 인기가 있었던 것은 갯빛 가발이었다. 갈색 머리분을 뿐린 '갈색가발'은 갯빛이나 흰색 가발만큼 유행하지는 못했다(鮎川, 1959).

순백의 머리분이 등장한 것은 1703년이었다. 이 가루는 당시의 한 작가가 말하고 있듯이, 가발뿐 아니라 '상의까지' 새하얗게 만들었다. 1715년까지 살아 있던 루이14세는 머리분을 싫어 하여, 만년이 되어서 겨우 조금 사용했을 뿐이었다.

프랑스혁명(1789~1795)과 함께 백년 동안 계속된 머리분의

Fig. 21. Rococo wig(西洋服裝史, p.82.)

Fig. 22. Macaroni(The Hat, p.64.)

유행도 끝났는데, 다수의 구체제파나 애국자는 이 습관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 영국에서는 보수파인 토리 당원이 변함없이 카도간 가발에 머리분을 뿐려서 프랑스혁명당의 지지자와 구별을 하고자 하였다.

1세기 동안이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가루를 뿐리는 습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이 습관에는 중요한 이점이 있었던 것이다. 첫째로 이것에 의해서 얼굴이 실제 이상으로 잘 보였고, 둘째로는 이것이 무엇보다 선호되었던 점으로, 머리분에 의해서 백발이라는 노년의 표시를 없앨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가발은 머리분 이상으로 널리 보급된 것으로, 계급이나 직업을 구별하는 표시가 되었다(鮎川, 1959).

한편, 프랑스의 멋쟁이들과 영국의 마카로니(Macaronis, 18C 이탈리아풍에 젖은 영국 멋쟁이)들의 독특하고 기괴한 의상과 지나칠 정도로 높게 쌓아 올린 듯한 가발은 그 시대의 불안정한 사회를 반영한 것이다(이종남, 1988)(Fig. 22).

가발은 당시의 입체구조를 만들어 세운 여성의 헤어스타일에 비하면 훨씬 위생적이었다. 이점에서 남성들이 큰 이점을 누렸다.

#### 4. 결 론

무절제한 폐락과 사치스러운 귀족주의로 대변될 수 있는 로코코시대는 예술과 생활에 있어 자유분방하고 과격적인 것을 요구해왔으며, 헤어스타일도 전무후무하리만큼 환상적이며 거대하고 화려하였다. 로코코시대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통해 내린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헤어스타일은 18C초기에는 머리카락을 부풀리지 않고 뒤로 빗어 넘긴 풍파두르형의 비교적 단순한 스타일이었으며, 중반에는 앞머리에 곱슬머리를 세트하는 헤어스타일이 등장했다. 1750년에는 가발을 패션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1760년경에 머리형태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높아지고 거대해졌으며 아주 특이한 헤어스타일들이 출현했다. 1770년대의 높은 헤어스타일은 매우 예술적이고 우아한 것이었으나, 1780년이 되자 높이라는 점에서도 장식이라는 점에서도 터무니없이 이상한 모양이 되어 버렸다. 이는 여성들이 남편을 대신해서 지위나 부를 과시하는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가발과 함께 머리분이 크게 유행을 했었는데 얼굴의 피부색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와 함께 머리분 퍼프, 머리분 주머니, 머리분 분무기 등이 발명되었고, 헤어드레서가 크게 각광을 받았다. 특히, 마리 앙뜨와네트의 헤어 담당인 레옹 아르는 퍼프(puff)장식의 명인이었고, 르그로는 탑 모양의 실루엣을 창안해서 헤어스타일의 혁명을 일으켰다.

남성의 헤어스타일은 여성들에 비해서 거대하거나 크게 장식적이지는 않았지만 가발을 즐겨 착용하였다. 가발은 17C에 비해 작고 간소해졌다. 뮤는 방법에 따라 피그테일, 라밀, 백

위그, 브리거디어, 캐더곤 등 각각의 명칭들이 존재했다.

특히 주머니가발은 그 기원이 일하는 도중에 자신의 머리를 감싸는 하인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는 설과 말꼬리가 주머니로 덮여 있다는 것에서 말을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는 두 가지의 설이 있다. 주머니가발은 병사들이 즐겨 사용하였는데, 군인사회에서 가발의 손질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솔리테르라 불리는 가발은 베티아의 기원이 되기도 했다.

1770년경 여성의 헤어스타일이 높아져가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리스형 또는 말굽형이라고 불리는 블이는 앞머리가 등장했으며, 머리분 또한 얼굴이 더욱 돋보이게 하는 효과와 노년의 표시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각광을 받았다.

가발은 머리분 이상으로 널리 보급되었고 계급이나 직업을 구별하는 표시가 되었다. 1780년대 마카로니들에 의해 남성들도 약간 과장된 머리형이 보여지기는 했지만 이는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로코코시대의 헤어스타일에는 로코코예술의 장식적이고 화려함이 그대로 적용되었었고, 이러한 사치스러운 로코코문화는 프랑스 혁명의 시초가 되는 불씨가 되기도 했으며,

혁명후의 헤어스타일은 혁명전의 화려함과 거대함은 사라지고 간소화 되었으며, 궁중의 공식석상에서만 약간 높은 헤어스타일을 볼 수 있었다.

## 참 고 문 헌

- 백영자 · 유효순 (1998) “서양의 복식문화”. 경춘사, pp.210-231.  
 이종남 · 안혜준 · 김선영 · 정명숙 (1988) “복식의 역사-고대 이집트에서 20세기까지.”. 까치, pp.436-440. 449-473.

- 윤길순 (1997) “세계패션사2”. 자작아카데미, pp.27, 42.  
 이정옥 · 최경순 · 최영옥 (1999) “서양복식사”. 형설출판사, pp. 237-240.  
 정홍숙 (1997)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pp.235-237, 266-269.  
 조좌호 (1990) “세계문화사”. 박영사, 서울, pp.422.  
 大沼 淳 (2000) “西洋服裝史 -文化服裝學院編-”. 文化學園 教科書出版部, pp.82, 93.  
 道邊健治 · 増子博調 (1996) “女性美の エスプリ-美容と服飾の美學-”. 里文出版, pp.24.  
 石山 彰 (1988) “西洋のヘア・ファッショń”. ポ-ラ文化研究所, pp. 44.  
 石山 彰 (1973) “西洋服裝史”. 文化出版局, pp.309.  
 深井晃子 (1998) “世界服飾史”. 美術出版社, pp.99.  
 鮎川信夫 (1959) “歐米理容美容の歴史”. 日本理容美容教育センタ, pp. 133-150.  
 グラント · マクラッ肯 (1998) “ヘア・カルチャ-もうひとつの女性文化論”. PARCO, pp.172-173, 178-179.  
 石山 彰 (1993) “メ-クアップの歴史-西洋化粧文化の流れ-”. ポ-ラ文化研究所.  
 Andson Black (1985) “ファッショńの歴史”. PARCO, pp.259, 265-267.  
 Boucher F. (1987) “20,000 Years of Fashion : The History of Costume and Personal Adornment”. Harry N. Abrams, New York, pp.291, 306.  
 Laver J. (1985) “Costume and Fashion : A Concise History”, Thames and Hudson, pp.129.  
 Ginsburg M. (1990) “The Hat : Trends and Traditions”. Studio Editions, pp.55, 62, 64.  
 Chahine N. (2000) “Beaute Du Siecle.” Editions Assouline. pp.61.

(2003년 1월 20일 접수)